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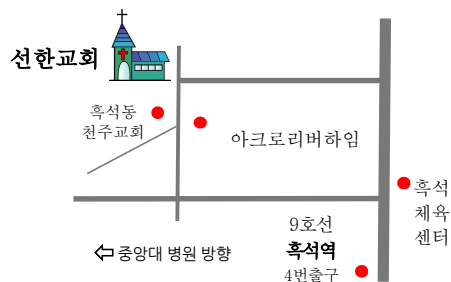
## 예배 및 모임 시간 안내

| 주 일 예 배     |               | 부서 예배 및 모임 (주일) |                 |
|-------------|---------------|-----------------|-----------------|
| 1부 주일 오전    | 9:30          | 오전 11:00        | 여호수아회 오후 2:00   |
| 2부 주일 오전    | 11:00         | 오전 11:00        | 요 셉 회 오후 2:00   |
| 3부(청년) 오후   | 1:00          | 오전 11:00        | 바 울 회 오후 2:00   |
| 오 후 예 배     | 주일 오후 3:30    | 오전 11:00        | 루 디 아 회 오후 1:00 |
| (5째주 셀가족모임) |               | 오전 11:00        | 마 리 아 회 오후 2:00 |
| 수 요 예 배     | 수요일 저녁 7:30   | 오전 11:00        | 드 보 라 회 오후 2:00 |
| 금 요 기도 회    | 금요일 저녁 8:30   | 오전 11:00        | 에 스 더 회 오후 1:00 |
| 새 벽 예 배     | 월-금요일 새벽 5:30 | 오전 11:00        | 안 나 회 오후 2:00   |
| 셀 가족 모임     | 셀별로 정한 시간     | 오전 11:00        |                 |

## 섬기는 분들

|             |               |                      |                      |
|-------------|---------------|----------------------|----------------------|
| 사<br>역<br>자 | 담 임 목 사 임 춘 배 | 국 내 선 교 사<br>협 력 교 회 | 오 인 숙, 한 배 선         |
|             | 교육목사 정 용 준    |                      | 가슴뛰는교회 (원종선 목사)      |
|             | 협동목사 홍 진 표    |                      | 기쁨교회 (유성은 목사)        |
|             | 교육전도사 윤 영     |                      | 주안예교회 (이정필 목사)       |
|             | 협력전도사 오 효 남   |                      | 주의뜰교회 (김대열 목사)       |
| 은 퇴 장 로     | 고 상 돈, 김 대 희  | 해외협력선교사              | 김만조, 이금춘, 조나단        |
|             | 박 희 태, 유 신 웅  |                      |                      |
|             | 조 윤 익         |                      |                      |
| 장 로         | 조 계 승 (집사장)   | 관 리 장 로<br>500/50 교회 | 손 석 규                |
|             | 박 영 근, 윤 호 중  |                      | (1호) 필리핀Good Church  |
|             | 편 도 선, 이 태 수  |                      | (2호) 세종 선한교회(신원섭 목사) |

## 선한교회 오시는 방법



버스간선 151, 350, 360, 462,  
640, 752(호사정앞 하차)  
지선 6411, 5524, 5511, 5536, 5517(중점)  
광역 9408  
마을버스 동작01, 10, 21(중앙대병원)  
지하철 9호선 흑석역 4번출구 (도보 5분)  
7호선 상도역  
\*5번 출구 하차 후 마을버시아용(동작 01, 10, 21)

표 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엡 5:10)  
Carefully determine what pleases the Lord

실 천 사 항 영의 일을 생각하기 기쁨으로 섬기기 복음 전하기

삶 의 방 식 (빌 4:1-7)  
교회에 대하여 : 같은 마음을 품고 동역하자  
개인에 대하여 : 주안에서 항상 기뻐하자  
성도에 대하여 :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자  
문제에 대하여 :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자



세세토록 살아 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계 10:6)



기 독 교 선한교회  
한국침례회

담임목사 임 춘 배

|                 |                             |                          |                                |                          |
|-----------------|-----------------------------|--------------------------|--------------------------------|--------------------------|
| <div>주일예배</div> |                             | 1부 오전 9:30<br>3부 오후 1:00 | 2부 오전 11:00                    | 인도: 임춘배 목사<br>인도: 정용준 목사 |
| 1, 2부           |                             |                          | 3부(청년부)                        |                          |
| 기원              | 인도자                         |                          | 경배와 찬양                         |                          |
| 찬양과 경배          | 85장 (통일찬송가 85장)             |                          |                                |                          |
| 교독문             | 교독문 19번 (시편 32편)            |                          |                                |                          |
| 찬양과 경배          | 546장 (통일찬송가 399장)           |                          |                                |                          |
| 기도              | 조계승 장로                      |                          |                                |                          |
| 찬양              | 드림성가대                       |                          |                                |                          |
| 성경봉독            | 요한계시록 10장 1~11절             |                          | 삼하 15:7~14                     |                          |
| 설교              | 두 번째 환상: 7나팔심판3<br>(임춘배 목사) |                          | 징계 속에서도<br>베푸시는 은혜<br>(정용준 목사) |                          |
| 헌금              | 헌금송 : 마리아회                  |                          | 다 함께                           |                          |
| 환영 및 광고         | 인도자                         |                          | 인도자                            |                          |
| 파송의 노래          | 주가 일하시네                     |                          | 함께 지어져 가네                      |                          |
| 축도              | 임춘배 목사                      |                          | 정용준 목사                         |                          |
| 성도의 교제          | 다함께                         |                          | 커피브레이크 모임                      |                          |

|         |                         |            |
|---------|-------------------------|------------|
| 주일오후    | 오후 3:30                 | 사회: 임춘배 목사 |
| 찬양      | Joy And 찬양팀             |            |
| 기도      | 손영삼 집사                  |            |
| 성경봉독    | 이사야 40장 1~31절           |            |
| 설교      |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br>(임춘배 목사) |            |
| 찬양      | 354장 (통일찬송가 394장)       |            |
| 광고 및 축도 | 임춘배 목사                  |            |

|                                  |         |            |
|----------------------------------|---------|------------|
| 수요일예배                            | 오후 7:30 | 인도: 임춘배 목사 |
|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시편 126편 1~6절) |         |            |

|      |                                                                 |
|------|-----------------------------------------------------------------|
| 교회소식 | - 예배 중에는 핸드폰을 무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br>- 예배 10분 전부터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

1. 예배안내
- 1) 주일 11시 예배는 영상으로 제공합니다.  
2) 교회헌금계좌: 기독교한국침례회선한 국민은행 02510104158558  
3) 오늘 점심 봉사는 여호수아회입니다.  
4) 주차 안내 ① 중앙대 정문 주차장 이용.  
(네 시간 주차: 2천원권 / 네 시간 이상 주차: 5천원권).  
\* 주차권은 사무실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② 흑석종합사회복지관 무료 주차 가능.

2. 헌신예배
- 다음 주일(6/1) 오후 예배는 유아 유초등부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3. 남성성경암송반
- 성경암송반 모집  
\* 대상: 선한교회 장년부 남자 성도  
\* 신청 기한: 2025년 6월 7일  
\* 문의: 류은영 집사 (010-7361-3331)

4. 국내선교
- 2025년 국내 선교  
\* 날짜: 7월 21일(월)~23일(수)  
\* 장소: 원주 주안예교회(이정필 목사)  
\* 참가 신청: 국내선교부 전희영 집사

5. 결혼식
- 이태수 장로님, 김미숙 권사님의 아들 이하민 군과 박수진 양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 일시: 5월 31일(토) 오후 2시 50분  
\* 장소: 포시즌앤강남 공우이엔씨 웨딩 3층 단독홀  
(강남구 남부순환로 2806)

|           |                                                           |
|-----------|-----------------------------------------------------------|
| 한주간의 기도제목 | 우리의 삶이 예배임을 기억하며 예배자로 살아가도록.<br>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신앙이 되도록. |
|-----------|-----------------------------------------------------------|

찬송 : '우리 주님 모신 가정' 555장

본문 : 시편 128편 1~6절

말씀 : 우리 시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에 큰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친구처럼 느끼는 데는 익숙하지만 그분을 두려움과 존경으로 경외하는 태도는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복해서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다.” 시편 128편은 그 복이 개인의 삶과 가정, 공동체 전체에 미치는 축복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을 누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정직한 수고를 기쁨으로 여깁니다. 일확천금이나 속임수에 기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실하게 살며 그 결과를 맡기고 감사함으로 살아갑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갈 6:7) 믿음으로 심고 성실하게 뿌린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복되고 형통한 삶으로 갚으십니다. 진정한 형통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길을 걷는 삶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가정의 복을 누립니다.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은 가정에서 풍성히 열매를 맺습니다. 포도나무 같은 아내, 감람나무 같은 자녀는 그 가정이 생명과 위로가 넘치는 자리임을 상징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외적으로는 성공했지만 가정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은 가정을 축복의 중심으로 회복시키는 은혜입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의 신부요 자녀가 모인 가정입니다. 가정과 교회 모두가 하나님 경외에서 출발할 때 온전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공동체와 세대에 복을 흘려보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네 자식의 자식을 불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하나님 경외의 복은 나 자신과 가정에 머물지 않고 시온 예루살렘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로 확장됩니다. 경건은 결코 개인적이거나 폐쇄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받은 복은 이웃과 나누어야 할 책임 있는 선물입니다. 그 복이 나뉘질 때 교회는 사막 같은 세상에서 오아시스가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은 자손 대대로 이어지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줍니다.

여호와 경외함은 단지 종교적 감정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따르는 태도입니다. 이 경외의 믿음이 우리 삶을 지혜롭게 하고 가정을 축복하며 공동체를 살리는 은혜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제 목

두 번째 환상: 7나팔심판3 (계 10:1~11)

서 론

사도 요한은 천상에서 3가지 심판 시리즈를 봅니다. 그 두 번째가 바로 7나팔 시리즈입니다.

### 1. 7나팔 심판3

(1) 여섯 나팔 심판: ①1나팔: 땅 재난 ②2나팔: 바다 재난 ③3나팔: 강물 재난 ④4나팔: 하늘 재난 ⑤5나팔: 악한 영에게 고통받는 불신자들 ⑥6나팔: 세계 전쟁(회개하지 않음) ⑦마지막 나팔(화) 남음

(2) 막간 장면(10:1-11:14): ①열린 책(10장) ②성전 측량(11:1-2) ③두 증인(11:3-14)

본 론

(3) 열린 책(10:1-11): ①손에 열린 책을 든 힘센 천사(1-4절) ②힘센 천사의 맹세(5-7) ③힘센 천사가 전해준 열린 책을 사도 요한이 먹음(8-11)

### 2. 교훈

(1) 10장의 막간 장면은 무엇인가?

(2) 요한이 들은 말들은 무엇인가?

(3)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 같이 달리라”의 의미는?

결 론

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힘 있게 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 예배 섬김이

|          | 오늘 섬기실 분 | 다음 주 섬기실 분 |
|----------|----------|------------|
| 2부 예배 기도 | 조계승 장로   | 박영근 장로     |
| 2부 예배 헌금 |          | 김은희 권사     |
| 오후 예배 기도 | 손영삼 집사   | 유아유초등부     |
| 주 방 봉 사  | 여호수아회    | 루디아회       |

| 매일 Q.T. |                                                                                                                                                                                                                                                                                   | 새로운 시작을<br>회개와 정결함으로 | 날짜 : 5월 26일<br>월요일 |
|---------|-----------------------------------------------------------------------------------------------------------------------------------------------------------------------------------------------------------------------------------------------------------------------------------|----------------------|--------------------|
| 찬양      | 찬송가 298장 속죄하신 구세주를                                                                                                                                                                                                                                                                |                      |                    |
| 본문      | 민수기 29:1~11                                                                                                                                                                                                                                                                       |                      |                    |
| 말씀요약    | 일곱째 달 초하루 곧 나팔절에는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며, 상번제와 초하루 제물 외에 정해진 제물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일곱째 달 열흘날 곧 대속죄일에는 성회로 모이고, 자기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상번제 외에 정해진 제물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                      |                    |
| 묵상질문 1  | 나팔절 규례 29:1~6<br>나팔절은 언제이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결단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                      |                    |
| 묵상질문 2  | 대속죄일 규례 29:7~11<br>대속죄일은 언제, 어떻게 지켜야 했나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에 집중하는 시간을 갖고 있나요?                                                                                                                                                                                                         |                      |                    |
| 한절묵상    | 민수기 29장 7절<br>속죄일은 민족적 회개의 날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죄를 해결하는 날입니다. 그날에 백성은 자기 ‘심령을 괴롭게 해야’ 합니다. ‘괴롭게한다’는 말은 ‘자신을 낮춘다’는 의미로, 금식을 가리킵니다. 또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합니다. 곧 자기 노력과 수고를 의지하지 않고, 죄사함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은혜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죄가 가져다 주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인식하고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                      |                    |
| 적용      |                                                                                                                                                                                                                                                                                   |                      |                    |
| 오늘의 기도  | 하나님, 참혹한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심으로 저희를 구속하신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저와 공동체가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 지지는 않았는지 늘 살피게 하소서. 속히 얻으려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오는 참 행복을 회복하게 하소서.                                                                                                                               |                      |                    |

| 개인 성경 공부 “약속에 근거한 믿음의 기도” |                                                                                                                                                                                                                                                                                                                                                                                                                                                                                                                                       |
|---------------------------|---------------------------------------------------------------------------------------------------------------------------------------------------------------------------------------------------------------------------------------------------------------------------------------------------------------------------------------------------------------------------------------------------------------------------------------------------------------------------------------------------------------------------------------|
| 찬양과 기도                    |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새 304)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
| 묵상 나눔                     | 하나님은 약속된 은혜를 믿음으로 담대히 간구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
| 이야기 속으로                   | 만약 조지 뮐러가 설교만 하고 고아들을 돌보지 않았다면, 것처럼 절실한 기도를 했을까? 그가 매일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면 수많은 고아가 굶어야 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서 약속을 찾았고, 그 약속에 근거해 기도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 모든 사례를 그가 기록으로 남겨 주어서 참 감사하다. 왜냐하면 내가 그의 책을 읽고 홀리네이션스선교회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져 우리 선교회가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 무료 숙식을 제공하는 쉼터를 열 수 있었고, 그곳을 찾는 아픈 사람을 치료해 주는 의료 사역을 계속할 수 있었다. 우리 앞에는 고난도 있지만, 기회의 문도 존재한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문을 만들어 두셨는데, 그 문을 열어 보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 서성거리며 주저하다가 때를 놓친다. 성경에 약속된 모든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서 나는 수없이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경험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나 자신이 아닌 이웃을 위해 은총을 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
| 말씀나누기                     | 민수기 27:1~11                                                                                                                                                                                                                                                                                                                                                                                                                                                                                                                           |
| 묵상포인트                     | 민수기를 구성하는 주요 장치는 두 차례의 인구조사입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는 출애굽 제2년 둘째 달 1일에 시행되었으며, 두 번째 인구조사는 출애굽 제40년 곧 출애굽 1세대가 모두 죽은 이후에 시행되었습니다. 두 차례 모두 군인을 계수하는 것이 목적이었으므로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20세 이상 남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인구조사는 가나안 땅 분배를 위한 목적도 있었습니다. 기업 분배에는 두 가지 원칙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각 지파의 인구에 비례해 기업의 크기를 정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제비를 뽑아 위치를 정하는 것입니다(26:52~56). 이는 기업 분배의 최종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으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받는 신정국가임을 의미합니다. 또한 단 한 사람도 기업 분배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믿는 자는 누구도 예외 없이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것을 예표합니다.                                        |
| 관찰과묵상                     | 하나님은 슬로브핫의 딸들의 요구를 어떻게 보셨나요?(7절) 하나님이 알려주신 상속법의 새로운 내용은 무엇인가요?(8~11절)                                                                                                                                                                                                                                                                                                                                                                                                                                                                 |
| 적용하기                      | 슬로브핫 딸들의 상속권 요구에는 그들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단지 가문의 생존을 위한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담대한 믿음의 선포였습니다. 이를 함당하게 여기신 하나님은 딸에게도 상속권을 허락하는 조항을 추가하심으로써 그들의 믿음에 응답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남자와 여자 모두 차별 없이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출신 배경과 상관없이 누구든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근거는 우리의 인간적 조건이 아니라 당신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복음입니다.                                                                                                                                                                               |
| 함께 기도하기                   |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녀 되게 하소서.                                                                                                                                                                                                                                                                                                                                                                                                                               |
| 기도                        |                                                                                                                                                                                                                                                                                                                                                                                                                                                                                                                                       |

| 매일 Q.T. |                                                                                                                                                                                                                                                                                   | 죄를 경계하고<br>정결을 회복하는 삶 | 날짜 : 5월 30일<br>금요일 |
|---------|-----------------------------------------------------------------------------------------------------------------------------------------------------------------------------------------------------------------------------------------------------------------------------------|-----------------------|--------------------|
| 찬양      | 찬송가 426장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                       |                    |
| 본문      | 민수기 31:13~24                                                                                                                                                                                                                                                                      |                       |                    |
| 말씀요약    | 전쟁에서 돌아온 자들이 미디안 여자들을 살려 둔 일로 모세가 노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브올에서 죄짓게 했던 여자들입니다. 모세의 명대로 미디안의 남자아이 및 사내를 아는 여자는 다 죽입니다. 그리고 율법대로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과 모든 물건을 진영 밖에서 정결하게 합니다.                                                                                                                     |                       |                    |
| 목상질문 1  | 모세의 진노 31:13~18<br>모세가 이스라엘의 군 지휘관들에게 진노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타락의 길로 유혹하는 요소들을 나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                       |                    |
| 목상질문 2  | 정결의식 31:19~24<br>모든 군인과 포로가 진 밖에서 7일간 머문 이유는 무엇인가요? 나는 내면을 거룩하게 하는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나요?                                                                                                                                                                                    |                       |                    |
| 한절묵상    | 민수기 31장 15~16절<br>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이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하나님은 미디안과의 전쟁을 명하신 목적은 이스라엘이 단순히 전투에서 이겨 전리품을 챙기는 데 있지 않고, 죄를 이겨 정결함에 이르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군인들이 미디안 여인들을 죽이지 않고 데려옵니다. 이는 유혹의 발미를 남겨놓은 것입니다. 작은 구멍이 댐을 무너뜨리듯, 대수롭지 않게 여긴 죄가 우리 삶과 공동체 전체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악이 틈탈 여지를 살피 철저히 없애야 합니다. |                       |                    |
| 적용      |                                                                                                                                                                                                                                                                                   |                       |                    |
| 오늘의 기도  | 하나님, 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끊어 내고 항상 경계를 늦추지 않게 하소서. 그럴듯한 변명으로 죄의 불씨를 남기는 어리석음을 뿌리 뽑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 가길 원합니다. 더디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결한 공동체를 이루어 가기에 힘쓰게 하소서.                                                                                                                              |                       |                    |

| 매일 Q.T. |                                                                                                                                                                                                                                                                              | 기쁨의 절기에<br>드리는 예물과 감사 | 날짜 : 5월 27일<br>화요일 |
|---------|------------------------------------------------------------------------------------------------------------------------------------------------------------------------------------------------------------------------------------------------------------------------------|-----------------------|--------------------|
| 찬양      |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                       |                    |
| 본문      | 민수기 29:12~40                                                                                                                                                                                                                                                                 |                       |                    |
| 말씀요약    | 일곱째 달 열다섯째 날에는 성회로 모여 아무 일도 하지 않고 7일 동안 초막절을 지켜야 합니다. 7일 동안 매일 정해진 제물로 제사를 드리고, 상번제와 속죄제를 드립니다. 여덟째 날에는 대회로 모여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나팔절과 속죄일 때와 같은 규모의 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                       |                    |
| 목상질문 1  | 초막절 규례 29:12~16<br>대속죄일 이후 5일 만에 지키는 초막절은 어떠했을까요? 광야와도 같은 인생길에서 내가 하나님께 드릴 감사의 제목은 무엇인가요?                                                                                                                                                                                    |                       |                    |
| 목상질문 2  | 초막절 제사와 성회 29:17~40<br>초막절에 하나님께 많은 번제물을 드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나는 얼마나 정성을 담고 있나요?                                                                                                                                                                                       |                       |                    |
| 한절묵상    | 민수기 29장 12~13절<br>초막절은 이스라엘의 여러 절기 중 가장 성대하게 지키는 절기입니다. 풍성한 추수를 마치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로 초막절 행사를 시작합니다. 이 절기의 핵심은 수많은 희생제물입니다. 이는 죄 사함의 예물이자 감사의 예물입니다.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넘치게 드릴 수 있습니다. 넘치게 드리는 것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이러한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더욱 친밀하게 합니다. |                       |                    |
| 적용      |                                                                                                                                                                                                                                                                              |                       |                    |
| 오늘의 기도  |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제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두려움으로 점검합니다. 의무감이나 습관적인 태도가 아니라 사랑으로 예배하게 하소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늘 돌아보며, 넘치는 헌신과 끊이지 않는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자 되게 하소서.                                                                                                                                 |                       |                    |

| 매일 Q.T. |                                                                                                                                                                                                                                                                                    | 질서와 화합을<br>우선시하는 서원 이행 | 날짜 : 5월 28일<br>수요일 |
|---------|------------------------------------------------------------------------------------------------------------------------------------------------------------------------------------------------------------------------------------------------------------------------------------|------------------------|--------------------|
| 찬양      | 찬송가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                                                                                                                                                                                                                                                                 |                        |                    |
| 본문      | 민수기 30:1~16                                                                                                                                                                                                                                                                        |                        |                    |
| 말씀요약    | 하나님께 서원하면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여자의 경우, 아버지 또는 남편이 서원을 지키게 하거나 무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또는 남편이 서원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으면, 여자는 이를 지켜야 합니다. 아내의 서원을 듣고 얼마 지나서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남편이 아내의 죄를 담당합니다.                                                                                                               |                        |                    |
| 묵상질문 1  | 미혼 여성의 서원 규례 30:1~5<br>미혼 여성의 서원은 누구의 허락이 있어야 유효했나요? 나는 가정 등 공동체에서 나의 의지보다 권위에 대한 순종을 우선시하나요?                                                                                                                                                                                      |                        |                    |
| 묵상질문 2  | 기혼 여성의 서원 규례 30:6~16<br>기혼 여성의 서원이 남편의 영향을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내가 상호 관계와 질서를 존중하면서 책임을 다할 일은 무엇인가요?                                                                                                                                                                                      |                        |                    |
| 한절묵상    | 민수기 30장 2, 13절<br>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여성의 서원은 아버지 혹은 남편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는 여성의 권리가 남성에게 종속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서원에 따르는 책임을 아버지 혹은 남편이 함께 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15절). 무리한 욕심과 과도한 의욕 혹은 무지로 인한 서원을 바로 잡을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서원은 늘 신중해야 합니다. 더불어 우리의 무지한 언행에도 불구하고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                        |                    |
| 적용      |                                                                                                                                                                                                                                                                                    |                        |                    |
| 오늘의 기도  | 하나님, 감정이나 분위기에 휩쓸려 경솔하게 내뱉은 서원이나 맹세는 없는지 되짚어 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처럼 저도 신중히 생각하고 진정성 있게 말하고 성실히 행동하게 하소서. 저와 공동체 지체들이 즐거이 헌신을 결단하고 함께 책임을 다하게 하소서.                                                                                                                                         |                        |                    |

| 매일 Q.T. |                                                                                                                                                                                                                                                                             | 하나님의 공의를<br>성취하는 거룩한 전쟁 | 날짜 : 5월 29일<br>목요일 |
|---------|-----------------------------------------------------------------------------------------------------------------------------------------------------------------------------------------------------------------------------------------------------------------------------|-------------------------|--------------------|
| 찬양      | 찬송가 352장 십자가 군병들아                                                                                                                                                                                                                                                           |                         |                    |
| 본문      | 민수기 31:1~12                                                                                                                                                                                                                                                                 |                         |                    |
| 말씀요약    |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총 1,2000명을 선택하고 그들을 무장시켜 전쟁에 보냅니다. 이때 비느하스에게는 성소와 기구와 나팔을 들려 보냅니다. 그들이 하나님 명령대로 미디안을 치고 발람도 죽입니다.                                                                                                             |                         |                    |
| 묵상질문 1  | 미디안과의 전쟁을 명하심 31:1~16<br>하나님이 미디안을 ‘여호와와 원수’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경건한 믿음 생활을 방해하기에 내가 정리할 일이나 관계에는 무엇이 있나요?                                                                                                                                                                      |                         |                    |
| 묵상질문 2  | 완전한 승리 31:7~12<br>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의 결과는 어떠했나요? 하나님 능력에 힘입어 내가 감당할 영적 전쟁은 무엇인가요?                                                                                                                                                                                               |                         |                    |
| 한절묵상    | 민수기 31장 3~4절<br>미디안은 이스라엘의 원수입니다. 음행과 우상 숭배의 죄로 유혹했기 때문입니다(25:1~3). 하나님은 미디안을 철저히 심판하십니다. 이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이자 죄를 경계하라는 교훈입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을 위해 모든 지파에서 천 명씩 출전합니다. 죄는 모든 사람을 유혹하기에 모든 지파에서 같은 수의 군사를 보내 싸우게 합니다. 사탄의 유혹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죄의 유혹에 맞서 믿음의 싸움을 결단할 때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                         |                    |
| 적용      |                                                                                                                                                                                                                                                                             |                         |                    |
| 오늘의 기도  | 하나님! 영적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 승리할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깊이 새기고 죄와 싸우기를 멈추지 않게 하소서.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승리의 깃발을 들게 하소서.                                                                                                                           |                         |                    |